

# 朝鮮, THE MORNING CALM

16호

1891년 10월

## □ 서지사항

- 제목 : 〈朝鮮, THE MORNING CALM〉 16호
- 발행인 : 영국성공회 조선선교회
- 발행지 : 영국 런던
- 발행일 : 1891년 10월
- 페이지수 : 20(표지 포함)

## □ 목차

|  |       |
|--|-------|
| Cover  | (i)   |
| The Mission  | ii    |
| Hospital Naval Fund  | ii    |
| Special Fund   | iv    |
| Association of Prayer and Work   | iv    |
| Education Fund   | iv    |
| Children's Fund  | iv    |
| The Bishop's Letter(주교통신, 7월 20일 제물포에서 보낸 서신)  | (109) |
| Association of Prayer and Work for Corea by Chambers Hodgetts<br>(조선을 위한 기도와 사목 협회, 호제츠) | 111   |
| A Visit to Corea (조선 방문기)  | 112   |
| The Spirit of Missions   | 115   |
| Missionary Intercessions and Thanksgivings   | v     |
| Associations of Prayer and Work for Corea  | vi    |
| Sketch map of COREA & adjacent Countries (지도)  | viii  |

## □ 해제

### 영국성공회 조선선교회가 런던에서 펴낸 잡지 〈모닝칼름〉 16호

코프 주교(The Right Rev. Charles John Corfe, 한국명 고요한)가 제물포를 소개하고 있다. 랜디스의 의료 선교사업은 조선인을 향하고, 그의 영어 교습은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금 사용하는 건물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독자들이 좀더 생생하게 시각적으로 그려보도록 돕고자 함이다. 조선을 위한 기도와 사목 협회(Association of Prayer and Work for Korea)의 사무총장의 자상한 글이 실렸다. 그리고 일본선교회의 여성이 휴가를 이용해 조선을

방문하고 보낸 편지 중 일부를 발췌해서 실었다.

### The Bishop's Letter - 주교통신

지난 편지에서 원산으로 떠나는 날 아침 랜디스 선생이 이곳 새 진료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을 때의 저의 만족감을 암시했습니다. 몇 가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건물은 회색 벽돌로, 지붕은 일본식 기와로 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진료소로 쓰다가 나중에는 교실로 쓰일 거라는 분명한 느낌이 오길래 그런 생각을 지을 때부터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길이 32피트(9미터 75센티), 폭 15피트(4미터 57센티), 꼭대기에서 14피트(4미터 26센티) 떨어진 곳에 열린 지붕이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사에게 12 x 15피트의 진료 공간을 주기 위해 칸막이 벽을 설치했습니다. 남은 공간에는 오랫동안 우리의 목적에 맞게 쓸 충분히 큰 교실을 만들 것입니다. 건물은 동서로 서 있고 긴 쪽이 남북을 향합니다. 남쪽으로 건물 길이만큼 베란다가 있고 동쪽의 비슷한 베란다가 만나는데, 동쪽에 주 출입구를 두었습니다.

이 건물 동쪽 끝은 도로에 면하는데, 바다에 시작해서 북쪽으로 직각으로 달리는 도로이며, 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제물포의 외국인 정착지와 조선인 마을이 나뉩니다. (...) 이 건물을 위한 자금은 약 50파운드로 한국에 병원을 제공하기 위한 해군기금에서 나오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곧 다시 생각해 보니, 전에 언급한 대로 언덕 꼭대기에 곧 병원이 들어서고 이 건물은 학교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만큼 해군기금을 이 목적에 사용하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제 생각에 저는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의 친절한 친구 처치(Mr. Church) 씨가 제게 60달러를, 의사 와일스 선생이 100달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부터 의사 랜디스 선생이 아시다시피 많은 일본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동안 견한 수업료 134달러입니다. 거기에 300달러 넘게 모인 건물 기금도 더하면, 120달러만 남아 있습니다. (...) 교육 기금 위원회로부터도 모금이 된 점도 기쁘는데, 제 출신 학교인 건지 섬의 엘리자벳 콜리지(Elizabeth College)와 랜싱 콜리지(Lancing College)의 옛 구성원과 현재 구성원의 노력 덕분입니다. 그런데 일본 학생들이 무의식 중에 조선선교회의 첫 번째 학교가 될 이 일에 가장 큰 몫의 기여하게 된 것이 정말로 흡족합니다.

(...) 의사 선생이 매력 포인트입니다. 이 건물에 방이 넷 있는데, 그중 한 곳이 예배당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친구들은 이를 이용했고, 저와 함께 며칠을 보내기 위해 한번에 한 명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제게는 큰 기쁨이고 특권입니다. 오늘은 이만 이별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다정한 벗입니다.

✽ C. J. 코프.

## Association of Prayer and Work for Korea - 조선을 위한 기도와 사목 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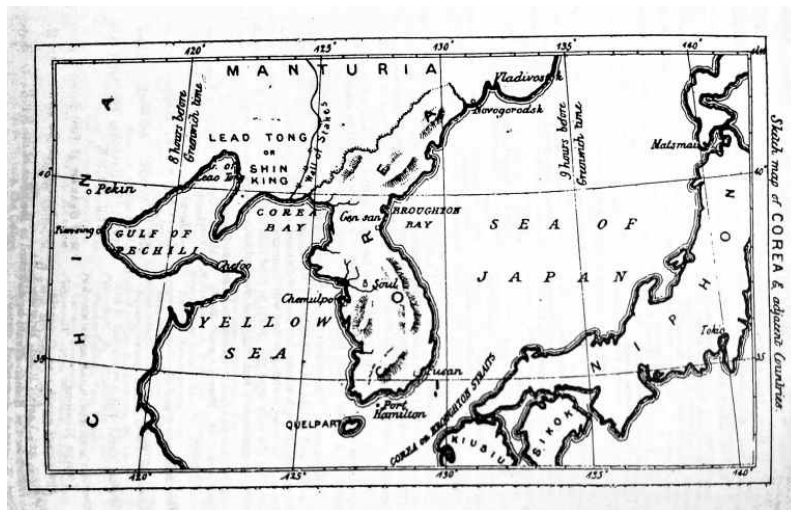
협회 사무총장[General Secretary] 호제츠(Miss Chambers Hodgetts) 씨가 썼다. 영국과 해외 지부 합쳐서 137개가 넘었다. 날이 성장중이다. 여러 가지 소식을 담고 있다.

### A Visit to Corea - 조선 방문기

굿이너프(Mrs. Goodenough, 조선을 위한 기도와 사목 협회의 학생 지부 담당자)씨가 일본선교회 소속 여성 평신도 사목자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 내용에 조선 여행담이 들어 있어서, <모닝캄> 편집인에게 보낸 듯하다. 쓴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조선에 관한 글이라면 무엇이든지 열성적으로 모으려 한 듯하다. 글쓴이는 그 유명한 포트 해밀턴(Port Hamilton, 1885년 영국군이 거문도를 점령한 이래로 영국은 이 섬을 이렇게 부른다) 지나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러시아군과 영국군의 대결의식을 잠깐 언급한다. 이어서 부산이 고대에는 일본 식민지였다고 쓸 뿐 아니라, 일본의 로마 천주교가 조선의 그리스도교의 시작을 가져왔다고 쓰고 있다. 제물포에 대해서는 더럽다, 비참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19세기 유럽인들은 조선 하면 무서운 곳 또는 더러운 곳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 이 글을 쓴 숙녀도 비슷하다. 그런 인상 외에도 유럽인들이 가진 조선 관련 정보들은 뒤죽박죽이고 부정확한 것이 많았다. 그 점 감안해가며 읽는 게 필요하다.)

### 그래픽 자료 - 지도

맨 뒤 표지에, 1호에 실린 한국 지도가 실려 있다. 자세한 설명은 1호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 아침생각

코프 주교는 1890년 9월 29일 아침에 제물포에 닿을 때 미국인 청년 의사 랜디스(E. B. Landis)와 함께였다. 코프 주교는 제물포에 머무는 것을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주교의 글을 읽으면 랜디스의 수고와 업적에 감탄하는 모습이 자주 나온다. 두 사람은 출신국가도 다르고 나이도 상당히 차이가 나지만(코프는 1843년생, 랜디스는 1865년생),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함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손잡고 동행하였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북돋우면서 같은 길을 걷는 두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우정을 보여준다. (※)